

“광주 정신을 되새기는 무대...모두의 의지 덕분”

김선철 작곡가, 펠리체오페라단과 6년째 동행 ‘무등등등26’-기억의 자리, 오늘 광주예술의전당 동학~해방광주 김준태·문병란 시 창작오페라로

“오페라 ‘무등등등’이 펠리체오페라단과 벌써 6년째 무대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 한 사람의 작곡가로서도, 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도 깊은 감회를 줍니다.”

펠리체오페라단(대표 김미옥)이 제19회 정기공연으로 5·18 46주년 기념 창작오페라 ‘무등등등26-기억의 자리’를 갖는 가운데 김선철 작곡가는 최근 이처럼 소감을 밝혔다.

이번 무대는 5·18민주화운동의 아픔과 광주 정신을 음악극으로 되새기는 펠리체오페라단이 올해도 김선철 작곡가의 창작오페라 ‘무등등등’을 중심으로 광주의 역사와 공동체의 기억을 성악과 연기, 무용으로 풀어낸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예술로 되새기고 전하고자 했던 작은 의도가, 다양한 연출과 해석을 통해 꾸준히 관객과 호흡할 수 있었던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을 잊지 않으려는 모두의 의지 덕분”이라며 “시간은 흘러가지만 작품에 담긴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무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무등등등’은 2021년 콘서트 오페라 형식으로 처음 관객과 만난 뒤 5·18기념공연으로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22년 42주년 기념공연을 시작으로

2023년과 2024년 ‘오페라로 기억하다’, 지난해 45주년 기념공연까지 거치며 올해 여섯 번째 무대를 맞는다. 같은 작품을 해마다 다른 연출과 해석으로 되새기며 광주의 오월을 현재의 관객에게 건네온 셈이다.

올해 공연의 부제는 ‘기억의 자리’다. 김하정 연출은 프로그램 글에서 “기억은 과거가 머무르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건네져 내일을 지켜내는 힘이 된다”고 밝혔다. 사건을 단순히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날을 살아낸 이들의 숨결과 떨림,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흔적을 무대 위에서 마주하겠다는 뜻이다.

작품은 한 가족의 삶을 중심으로 동학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시민군의 항쟁과 해방광주, 비극적 결말 이후 이어지는 광주 정신을 따라간다. 정찬경 광장음악회 단장의 지휘 아래 1막에서는 동학혁명과 5·18을 잇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민요 편곡 ‘새야새야 파랑새야’, 이은복의 시 ‘우금치 흙’, 김



김선철 작곡가



펠리체오페라단은 2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제19회 정기공연으로 5·18 46주년 기념 창작 오페라 ‘무등등등26-기억의 자리’를 선보인다. 사진은 지난 ‘무등등등’ 공연 모습.

지하의 시 ‘황룻길’을 들려준다. 이어 1980년 5월 18일 아침을 배경으로 계엄군의 노래 ‘전라도 광주는 우리의 타겟’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교차한다. 신경림의 시 ‘갈길’, 김준태의 시 ‘아아, 광주여’ 등이 아리아와 합창으로 선사된다.

2막은 시민군의 항쟁과 해방광주, 그리고 다시 찾아온 비극을 담는다. 김준태의 시 ‘금남로의 사랑’, 광재구의 시 ‘대동세상-진도 아리랑’, 문병란의 시 ‘어느 구두둑이 소녀의 죽음’ 등을 통해 공동체를 지키려 했던 시민들의 마음을 드러낸다. 마지막에는 ‘풀씨’와 문병란의 시 ‘광주여 영원하라’ 등을 통해 광주 정신의 부활과 기억의 계승을 노래한다.

아버지 역은 김중권, 어머니 역은 홍선희, 아들 역은 신연석, 딸 역은 최미정, 구두둑이 소녀 역은 최민유가 각각 맡아 열연을 펼친다. 이와 함께 소프라노 구희진·최미정·박선경·나혜숙, 메조소프라노 신은정·고은비, 테너 김백호·나영오, 바리톤 김희열, 베이스 김일홍 등 지역 성악가들도 함께 한다. 피아노 김한나와 일렉트릭 기타 오미정이 음악을 함께하며, 배우와 무용수들도 무대에 올라 드라마적 흐름을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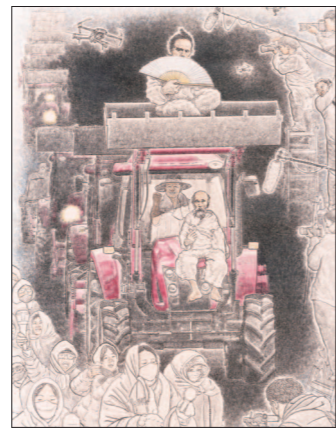
김하정 연출은 “과거를 추모하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기억을 통해 미래를 비추는 무대”라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아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연은 2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홍성담 작 ‘고풀이’



박성우 작 ‘서울로 가는 길’

‘동학혁명 의미’ 오늘의 시선으로 재해석

‘5·18항쟁 46주년’ 기념 특별전 오는 9일까지 ‘창포장수’ 주제로 홍성담·전정호·전상보 등 출품

목포5·18민중항쟁 제46주년기념행사위원회(대표 한봉철)는 오월민중항쟁 46주년 기념사업으로 진행할 특별기획전시를 지난 19일 개막, 오는 7월 9일까지 문화예술협동조합 나무술 갤러리에서 ‘창포장수’라는 타이틀로 갖는다.

이번 전시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오늘의 시선으로 재해석하고, 무안지역에서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인물을 예술로 기록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에는 홍성담, 전정호, 전상보, 박성우씨 등의 작가가 참여, 출품했다. 작가들은 우리 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였던 무안 대접주 배상욱 장군의 활동을 중심으로 남도 민중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현대미술 작품으로 풀어내고 있다.

전시 타이틀인 ‘창포장수’는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민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에 등

장하는 표현에서 차용했다. 전봉준 장군을 상징하는 ‘녹두꽃’과 함께 등장하는 ‘창포장수’를 배상욱 장군의 상징으로 해석하며, 동학농민혁명 이후 잊혀진 지역의 역사와 인물을 다시 불러내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동학농민혁명에서 시작된 민중의 자주와 평등 정신이 5·18민중항쟁과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져 왔음을 예술적 시각으로 조명하고 있다. 회화와 판화, 설치작품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역사와 현실, 기억과 공동체에 대한 질문을 던질 방침이다.

전시를 기획한 최은재 문화예술협동조합 나무술 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의 정체성과도 깊이 연결돼 있다”면서 “이번 전시가 잊혀진 남도 동학농민군의 이야기를 예술로 기록하고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가 열리는 나무술 갤러리는 최근 목포시 창평동에 새롭게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으로 상설적인 전시와 문화예술교육, 지역 예술가 창작활동이 함께 이뤄지는 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전정호 작 ‘농민들’

세계 실력과 뮤지션들 광주 총장으로 달군다

‘제5회 광주버스킹월드컵’ 라인업 확정 56개국 535팀 지원...국내외 8팀 경합

광주 동구 총장로에 오는 10월 세계 각국 뮤지션들이 모인다.

1일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최근 제5회 광주버스킹월드컵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5개국 8개 팀을 최종 선발했다.

광주 동구가 주최하고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광주버스킹월드컵은 라이브 공연을 중심으로 경연을 펼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음악 오디션이다. 거리와 광장을 무대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지역 축제와 국제 음악 교류를 결합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56개국 535개 팀, 1549명의 뮤지션이 지원해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내에서는 352개 팀, 해외에서는 183개 팀이 참가 신청했다. 해외 참가팀은 유럽 78개 팀, 아시아 37개 팀, 아프리카 27개 팀, 아메리카 35개 팀, 오세

아시아 6개 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참가국 수가 14개국 늘어났고,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 참가가 증가해 광주버스킹월드컵이 국제 경연을 넘어 세계 각국의 음악적 개성과 문화가 만나는 국제 음악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버스킹월드컵에는 국내 4개 팀과 해외 4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우승을 놓고 경쟁한다. 국내 본선 진출팀에는 덩(Dub)과 레게를 기반으로 독창적인 사운드를 들려주는 밴드 콤어겐츠(KOMAGENS)가 이름을 올렸다. 2025 한강 대학교 대성대 학생팀 ‘투월브’ 출신 보컬 유하은, 아이돌 밴드 연습생 출신 멤버들이 결성한 듀오 언오피셜(Unofficial), 재즈-라틴 밴드 부에나모멘토가 본선에 진출한다.

해외 본선 진출팀의 면면도 다채롭다. 카메룬의 전통음악에 현대 재즈와 클래식 결합한 조셀 마소마 트리오(Joseph Massoma Trio)는 월드뮤직 퓨전 사운드로 유럽 음악계에서 활동을 이어온 팀이다. 호주와 인디 포크 듀오 세이지(Saige)는 감성적인 하모니와 독특한 풋드럼 연주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멕시코의 부엔로스트로(BuenRostro)는 전통 포크 음악에 록과 재즈, 삼바를 접목한 포스트 포크 스타일의 음악을 들려준다. 일본의 스콜라(sucola)는 시타팝과 솔, K-팝을 결합한 세련된 사운드로 주목받는 신세대 팝 듀오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권에서 출발한 뮤지션들이지만, 이들은 무대 위 라이브 음악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광주 관객과 만난다. 덩-레게와 라틴, 월드뮤직, 인디 포크, 시타팝과 솔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공연이 총장로 곳곳을 채울 전망이다.

이번 예선 심사에는 ACC월드뮤직페스티벌을 기획한 장용석 감독, 세계 무대에서 활동 중인 재즈 피아니스트 폴 커비, 드러머 원익준이 참여했다. 음악성과 무대 경쟁력, 편곡과 퍼포먼스, 장르적 독창성 등을 두루 살펴 본선 진출팀을 가렸다. 한편, 제5회 광주버스킹월드컵은 오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다섯날 광주 동구 총장로 일원에서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버스킹월드컵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은 최근 제5회 광주버스킹월드컵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5개국 8개 팀을 최종 선발했다. 사진은 제4회 광주버스킹월드컵 무대 모습.

과학관에서 시원하게 여름나기...‘물과학체험장’ 개장

광주과학관, 24일부터 운영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경구)의 대표 여름행사인 ‘물과학체험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돌아온다.

1일 국립광주과학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야외 바다분수 일원에서 ‘2026 물과학체험장’을 본격 운영한다.

올해 물과학체험장은 물의 흐름을 이용해 과학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물과학놀이터’와 대형 아쿠아 볼록, 시원한 그늘막이 구비된 페달보트장, 다양한 높이의 에어 슬라이드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무더위를 한방에 날려버릴 ‘분수터널’과 마치 열을 동굴에 들어온 듯한 시원함을 선사할 ‘아이스이글루’ 공간을 새롭게 조성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또 아이들이 적정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록 돕는 따뜻한 온수품과 영유아 전용품도 함께 갖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안전성을 더했다.

관람객들의 편의와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역대 최초로 매주 토요일 야간 개장을 전격 도입했으며, 시원한 냉방쉼터 및 확장된 휴게 공간 운영, 매주 1회 펼쳐지는 버블쇼 이벤트 등도 준비된다.

이용 요금은 1인 1회차 기준 성인 4000원, 청소년·어린이·유아는 6000원이며, 24개월 미만 유아 및 65세 이상 어르신은 증명서를 지참한 뒤 유인매표소에서 무료 발급 후 입장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예약은 통합예약시스템(온라인매표소)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재경 기자 view2018@